

전주세계소리축제 대대적 감사 여론 비등

도의회, 운영 전반 누적 문제 지적 김정수 “정관 개정 등 혁신 미완” “축제 강행보다 정상화 확인 먼저”



김정수 위원장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수 위원장(고창1)은 지난 2일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 예산,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초 최철 전주21세기병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김정수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새로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축제 프로그램

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조직 운영과 인사·회계·노무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해 인사·회계·계약·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다수의 시정·처리 요구가 제기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특정 간부의 기본급 48.6% 인상과 환수 등 후속 조치 ▲전북도 승인 없이 편성·집행한 추가경정예산의 회수 ▲업무추진비 선결 제액 환수 ▲정관과 내부규정 현행화 ▲집행위원장의 겸직 승인 절차 마련 ▲상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구성 정상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인사·과목

합 대응체계 마련 ▲지역 예술인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조직위가 올해 초 제출한 조직 운영 혁신방안에도 인사·복무, 의사결정, 인권·윤리, 제작관리, 출연진 선정, 투명성, 지역 참여, 대외협력 등 8개 분야의 문제점과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혁신방안에는 사무국 중심의 내부 사정 검토 의무화, 복무관리와 사후보고 체계 정비, 의사결정 기준 명문화, 정관과 내부규정 현행화, 이해충돌 방지, 계약 심사 강화, 지역 예술인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과 실제 개선이 이뤄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며 “정관 개정 등 핵심 제도개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과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행정팀, 콘텐츠운영부, 대외협력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혁신방안 역시 사무국 중심의 사전

검토와 복무관리, 사후보고 체계를 핵심 실행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 집행부에서 파견된 사무국장이 조직의 행정과 운영관리를 맡도록 한 것은 과거와 같은 독단적 의사결정과 부실한 회계·복무 관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사무국 중심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에 주요 사안이 적시에 보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면 재검토는 축제를 무조건 취소하지는 의미가 아니라, 개최를 당연한 전제로 두고 문제를 덮은 채 행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검토 결과에 따라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 사업 규모, 예산을 조정하는 것까지 열려둬야 한다”며 “25주년이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다시 전부를 대표하는 축제로 바로 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대변인 진형석 의원 임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3일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대변인에 진형석 의원(전주2·더불어민주당)을 임명했다.



진형석 도의원

하게 알리며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장과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장정철 기자

김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의정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앞으로 의정 주요 사안에 대한 알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도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가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진형석 대변인은 “박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정확하고 투명

전국 귀농·귀촌 감소 속 ‘증가세’ 전북, 수도권 공략

aT센터서 맞춤형 상담홍보전 13개 시군 참여 정착 정보 제공

전북도가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전북 농촌의 정착 여건과 지원정책을 알리고 실제 전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최근 귀농귀촌 통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전년보다 1.9% 감소한 반면, 전북은 귀농 1,248명, 귀촌 1만8,839명 등 총 2만 877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귀촌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전북은 귀농과 귀촌 인구가 모두 증가하며 귀농귀촌 선호지역으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상담홍보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올해 비록해 도내 13개 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이 참여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북의 정주 여건과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는 대표 홍보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에는 방문객 1,272명, 상담자 367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행사장 창조로1에서는 시군별 상담관과 전문상담관을 상시 운영해 귀농·귀산촌, 농촌 일자리, 스마트팜, 청년창업, 농지,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창조로2 교육관에서는 귀농귀촌 준비 교육도 함께 진행돼 첫째 날에는 귀농귀촌 마인드 함양 교육과 전북 귀촌 정책 설명회, 귀농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운영했다. 둘째 날에는 농촌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선배 귀농인이 스마트팜 운영 사례와 정착 경험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귀농귀촌 노하우를 전달했다.

민선5기 농생명축산산업공장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도시재생 공모 5곳 선정...국비 461억 확보

군산·남원·장수·김제·임실 선정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사업 확보 생활SOC·노후주거환경 개선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5개소가 선정돼 국비 461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화·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지원·우리동네살리기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연초부터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현장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국토부 평가 단계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지역특화 유형에 군산·남원, 인정사업에 장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에 김제, 우리동네살리기에 임실이 선정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확보했다.

먼저 군산시 중앙동은 ‘뉴 스타트업 챌린지 군산 로컬타운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을 들여 지역 공실 점포를 취업·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관련 교육·지원 시설과 함께 1990~2000년대 복고풍 테마 거리·문화 광장을 조성한다.

남원시 운봉면은 ‘미식과 휴양, 별빛이 머무르는 힐링거점 운봉’을 주제로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을 투입해 운봉 흑돼지와 고령지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시설, 지리산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치유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정주 환경도 개선한다.

또 장수군 장계면은 ‘함께 나누고 어울리는 공간, 장계 어울림센터’ 조성에 총사업비 35억 원(국비 21억)을 투입해 마을 공동 식당·작업장, 노인 교실, 실내 건강교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주민 맞춤형 복합공간을 만든다.

김제시 신흥동은 노후주거지정비지원 유형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90억)을 들여 자율주택정비와 신규 도로

개설, 노외 주차장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세대통합 커뮤니티시설 등 편의시설도 공급해 민간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임실군 관촌면은 ‘다시 채우고 함께 나누는 활력충전소, 관촌’을 주제로 총사업비 83억 원(국비 50억)을 투입해 기존 관촌면사무소를 리모델링, 주민 문화·복지 공간과 주차장·태양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주택 집수리와 안심골목길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재생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 도민주권정부 ‘속도’...도민 제안 정책 반영

전북도가 도민과 함께 그려낸 민선9기 도정 밀그림을 토대로 도민주권정부 실현에 속도를 낸다.

이원택 도지사 후보 시절 꾸려졌던 도민주권참여위원회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북의 미래 비전과 민생 현안에 대해 총 80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민선9기 공약과 139개 도정 과제에 담았다.

이는 도민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로서 기획·설계 단계부터 목소리를 낸 것으로, 민선9기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을 현실로 옮긴 첫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민이 제안한 정책은 창업·지역경제, 복지, 에너지, 교육, 체육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렀다. 새만금을 거점으로 한 창업도시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돌봄서비스 확대, 신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청년 진로·취업 지원, 생활체육 인프라와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등 민선9기 정책 밀그림을 짜는 데 반영됐다.

도는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안들을 민선9기 공약과 도정과제에 순차적으로 담아낼 방침이다. 실현 가능한 사업은 여건과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단계별로 추진하고, 제도 개선이나 유관 기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검토를 거쳐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안별 특성에 맞는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과 참여 창구를 통해 도민이 정책의 주제로 서는 도민

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도민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은 정례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주권정부는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도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정부”라며 “전북의 미래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도민 중심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송영길 “이원택 지사, 올바른 자세 아냐”

“전북 발전 도움 안 된다” 지적 “서남권 발전 속 역할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3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상실감과 실망을 안겼다”고 언급한 이원택 전북지사를 겨냥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화·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다. 그런데 전북지사의 발언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송 전 대표는 “대구시장도 아니고 (전북지사가)전북 소외론을 꺼내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이미 전북에는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 현대자동차가 9조 원을 투자하기로 이미 계획돼 있고 추진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가 충청과 광주·전남으로 서남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그 속에서 전북의 역할을 얼마든 찾아낼 개연성이 남아 있다. 전북 소외론에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이 지사를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우리 당도 그런 것에 편승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환경하면서 서남권 발전으로 만들어 갈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1.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2. 불법 주정차는 하지마세요
3.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어린이

1.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2. 등하굣길에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아요
3.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전북경찰 교통사고 집중관리 '사망사고 17.6%' 감소

이륜차·화물차·음주운전 단속 선제적 예방 주력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연중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6월 한 달간을 '고위험(고령차, 두바퀴차, 화물차, 음주운전) 유형 교통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과 홍보 활동을 한 결과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6월 한달 간 사고 우려가 높은 고위험 유형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두 바퀴차 523건(65.5% ↑), 화물차 1,106건(17.3% ↑),



음주운전 255건(2.4% ↑) 등 사고유발 노인대학 집합교육 등 교통안전에 취약행위를 적발하고, 합동캠페인, 경로당, 약한 고령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집중

홍보를 병행해 교통사망자는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14명으로 17.6%로 감소하는 결과를 거뒀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을 바탕으로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도 음주운전 및 두바퀴차 안전도 착용 등 특별단속 체계를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6월은 연중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이지만, 선제적인 대책과 도민들의 협조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여름 휴가철에도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 기상지청 6월 전북기후특성 발표

6월 평균기온 평년보다 높고 장마 시작 늦어져

전주 기상지청 신연성 청장이 지난 3일 전북도 2026년 6월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신 청장에 따르면 26년 6월 전북의 평균기온은 22.4℃로 평년(21.6℃)보다 0.8℃ 높았지만, 가장 더웠던 2025년(23.0℃)보다 0.6℃ 낮았다고 밝혔다.

6월 전북 강수량은 69.5mm로 평년(147.7mm) 대비 46.8% 수준으로 평년보다 적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수량은 7.7일로 평년(10.0일)보다 2.3일 적었다.

신 청장은 장마 관련해 올해 장마철은 제주도도 남부지방이 6월 3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각각 11

일, 7일 늦고 원인으로는 블로킹으로 인한 잦은 상층 찬 기압골의 영향과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서쪽으로의 확장 지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연성 전주 기상지청장은 "최근 기후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년 기후특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방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여름철에도 폭염·열대야, 장마,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기상지청은 전북 기후 평균값으로 1991년 이후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7개(전주, 군산, 부안, 임실, 정읍, 남원, 장수) 지점의 관측값을 사용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본부 '2026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해수욕장·계곡하천 총 12개소 인력 2586명 투입

전북소방본부가 여름 휴가철 도민과 피서객 안전한 물놀이 위한 '2026년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에 나선다.

전북소방본부 진형민 본부장은 지난 3일 부안군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2026년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최근 5년 구조·구급·안전조치 수행의 건은 총 3796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19 시민수상구조대 구조·구급·안전조치 수행의 결과 배치 장소 내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전북소방본부 119 시민수상구조대 배치는 군산 선유도, 부안 고사포 등 해수욕장 7개소와 남원 뱀사골, 진안 운



전북소방본부가 여름 휴가철 도민과 피서객 안전한 물놀이 위한 '2026년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에 나선다

일암반일암 등 계곡·하천 5개소를 포함 운영 기간 동안 투입되는 인력은 연인원 2586명으로 이는 1일 평균 69명이 현

장 근무에 나선다.

특히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장비 15대도 함께 배치해 수상·수중 인명구조, 응급처치, 병원이송, 수변 안전조치, 구명조끼 대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계곡에는 전문구조대와 구급대원을 함께 배치한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해 구조부터 응급처치, 병원이송까지 이어지는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북소방본부는 구명조끼와 드로우백 등 구조용품을 일괄 배부해 도내 수난사고 대응체계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소 개선 여부와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 덕진소방서 공장 밀집지역 소방안전 실태조사

진입장애·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로 화재 대응 기반 강화

전주 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화재 대응 여건을 점검하고 안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관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진입장애 및 소방용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별입지 형태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이 산업단지나 달리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화재안전 기반시설 개선과 재정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주 덕진소방서 관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계획입지와 도시 건물형 공장, 대로변 인접 대상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공장 입구부터 100m 이내 소방차량 진입 가능 여부 △공장 내 10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보일러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중형펌프차 기준으로 진입 장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실제 화재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진입 장애가 확인된 대상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화재취약지역의 안전 인프라 확충과 신속한 소방활동 여건 조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민 폭염대응 '안전한 주거생활' 추진

오운주 센터장 1000만원 규모 냉방용품 맞춤형 지원

전주시민 폭염 대비한 '혹서기 냉방용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오운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혹서기 냉방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한

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센터의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된다. 나아가 여름철 위험에 노출된 주거 취약가구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

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다. 품목은 △벽걸이 에어컨 △소형 냉방고 △세습기 △선풍기, 냉방이불 등 냉방용품이며,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1개 품목을 지원한다.

단, 일부 품목의 경우 가구 방문 상담을 거쳐 주거 환경을 확인한 후 지원될 예정

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8일까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기초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 장마특보 발령시 '교통안전대책반' 즉각 가동

원거리 차단으로 도민 교통안전에 총력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주말인 4일부터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차도 등 침수취약구간에 대한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 전북지역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즉시 '교통안전대책반'을 운영해 도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을 중

심으로 집중 순찰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실제 교통통제 구간이 발생할 경우, 교통 혼잡과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거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차량 운행 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감속 운행 등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며, 경찰의 교통 통제시에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산악 안전시설 점검

산악사고 대비 위험요소 사전 제거

최근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악 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가 전주·완산구와 함께 모악산 등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최근 등산객 증가와 함께 집중호우,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

악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등산로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산악위치표지판 및 간이구급함 등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확인 △경고표지판·안전간판 등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구급함 내 의약품 및 비상용품 비치 상태 확인 △산악위치표지판 국가지점번호 훼손 여부 확인 등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삼계탕 봉사 이어져

지역사회 화합 '기여' 목적

"무더위 이겨내세요"

전주시지역민 향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응원의 소리다.

지난 3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전주 한부모가족 및 여성권익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삼계탕 100인분 나눔을 실시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삼계탕 나눔 행

사는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 상대로 매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삼계탕 100인분과 정성껏 손질하고 조리한 밀반찬과 함께 한부모가족과 여성 보호시설 등의 전달로 이어졌다.

현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2330여명 회원들로 구성되어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지역민 쾌적 환경조성 '환경정비'

우아1동 통장협의회·주민센터직원·지역민 '합심'

쾌적한 전주시 우아1동 거리 조성 위한 환경정비에 지역민 참여가 이어지며 구슬땀이 흐르고 있다.

지난 3일 우아1동 통장협의회 그리고 주민센터 20여명, 지역민들은 우아1동 스루택가 스피클 △분리수거함 등 청소 취약지역을 돌며 쓰레기 줍

기 및 제조 작업 등을 실시했다.

우아1동 이성기 통우회장은 "지역사회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통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아1동 송정하 동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찾고 싶은 깨끗한 우아1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신보재단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력

한중관 이사장 경영비전 "주목" 7천만원 한도 연 2~4% 신용 대출

국내외적 경제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전북도 소상공인 금융에는 수면위에서 현실속 시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국내 최고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영비전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한중관 이사장은 지난 3일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정책자금 보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대리대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후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에 접속해 '(비대면)정책자금 연계 일반보증'을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 협력해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는 요건에 따라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원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환대출로 나누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각 자금 별 대출기간 △금리 또한 다르게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정부 지원을 통해 연 2~4% 대로 일반 신용 대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지원금 상환방식은 2년까지 3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신보 한중관 이사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원활한 자금 지원이 절실할 때"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 금융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디지털금융지원(1588-3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사진=진안군>

"진안군민 위한 진안군의" 신상품 보급

신동진1 생산단지 조성
군맞춤형 농기계농자재 지원

식량작물 신상품 종자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진안군이 변화를 시도한다. 진안군 신상품 종자 단지 조성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신상품 종자 보급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관련해 진안군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벼 신동진1 토대로 한 신상품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은 군민 다변화 위한 종자를 제공하기 위

해 신동진1 △내병성(카다리병·벼 흰잎마름병) △외관품위 향상한 신상품 시장 변화 대응을 마무리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신동진 브랜드 가치 계승과 군민 벼 안정 생산 및 최고품질 벼 확대 보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백운면 평장리 소재 약 12ha 규모 신동진1 생산단지 조성하고 함께 농기계·농자재 맞춤형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은 우수한 신상품을 신속하게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TP-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역로봇산업 업무협약

새만금 지구 활성화 기반 협력체계 구축

전북TP-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지난 3일 '지역로봇산업 및 새만금 지구 활성화 기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로봇산업 육성과 새만금 지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 등이다. 협약식에는 전북TP 이규택 원장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강기원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로봇산업 발전 방향과 협력 전략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로봇산업 성장 지원 △재난안전·방산·해상에너지·농업로봇 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 협력 △중장

기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 대응 △지역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공유 및 실증 지원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등 기업성장 생태계 구축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TP가 추진 중인 방위산업,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기업지원 역량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재난안전로봇, 국방로봇, 농업로봇 등 로봇 분야 전문 연구역량을 연계해 신규 국가사업 발굴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산업과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신규 국가사업 유치,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혁신



전북TP-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지난 3일 '지역로봇산업 및 새만금 지구 활성화 기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TP>

거점기관으로서 방위산업, 이차전지, 디지털 융합, 에너지산업 등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로봇 전문 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재난안전, 국방, 해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장마 대비 재해예방 '최선'

장마대비 대책회의
16개 시도 및 유관기관 참석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장마 대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늦게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지난 6월 30일, 중부지방은 지난 1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기상청은 올해 장마전선 영향으로 6월 30일 제주도에 최대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지난 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과 16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에 대비해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의 생명과 영농기반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에게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농업 시설 정비 등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번 준비사항에 미흡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국민생명 관련 있는 수리시설, 산사태, 태양광 분야는 주민대피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재점검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격 장마대비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응으로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를 신속 추진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의 생명과 영농기반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에게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농업 시설 정비 등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운영위원 화합·역량' 강화

운영위원 결속 상호 협력 증진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운영위원 화합 역량 강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안 심의 등 평소 협회 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결속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협회 주요업무 보고받고 지역 건설업체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조달청 공사입찰 점검팀 출범에 맞춰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 운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 간이중

심제 구간인 100억~300억미만공사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재편된 현황을 상세히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소재철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민선 9기 전북도정에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대형 공사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진=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위원 화합 역량 강화'는 지난

2일 세종에서 회장단·운영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정소민 기자

신협 연 최고 8.5% '플러스정기적금' 출시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12개월 만기 상품

신협은 연 최고 8.5%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10차 상품을 출시해 고객사랑 1순위를 이어가고 있다. '플러스정기적금'은 신협이 신한카드와 연계한 선보이는 고금리 특화 적금 상품이다. 이번 10차회차 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대 5.5%p를 더해 최고 연 8.5% 금리를 제공한다. 상품은 12개월 만기로 운영되며 월 1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상품명	우대조건 안내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신협 연 최고 8.5% (연 3.0% + 우대 5.5%)

우대금리는 신협-신한 제휴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 신협 계좌 결제계좌 등록, 자동이체 납입, 급여이체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한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최대 5.0%p다.

적용 대상은 △신협-신한 제휴카드를 처음 발급하는 고객 △기존 신한카드 신규가입 고객 △신협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신한카드 탈퇴 후 90일이 경과

한 고객이다. 신협-신한 제휴카드는 △신한카드 B.Big(신협) △신한카드 Simple+(신협) △신한카드 Shopping(신협) △신한카드 Deep Once Plus(신협) △신한카드 RPM+ Platinum#(신협) 등 총 5종이다. 김형선 신협중앙회 총무본부장은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카드 이용실적과 신협 거래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연 최고 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고객의 목적자금 마련과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인 '온(ON)뱅크' 및 '리온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김성수 부장 무주군 명예군민에 선정

소상공인금융편의증진
지역인재육성공로 인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 김성수 마케팅기획부장이 무주지점장 B.Big(신협) △신한카드 Simple+(신협) △신한카드 Shopping(신협) △신한카드 Deep Once Plus(신협) △신한카드 RPM+ Platinum#(신협) 등 총 5종이다. 김형선 신협중앙회 총무본부장은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카드 이용실적과 신협 거래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연 최고 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고객의 목적자금 마련과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인 '온(ON)뱅크' 및 '리온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인들이 보증상담과 정책자금, 금융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편의를 증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무주군 장학재단에 3년간 사비로 매년 1백만원씩 총 3백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나아가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행사 후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다. 김성수 마케팅기획부장은 "무주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뜻깊게 평가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25억 투입해 기술사업화 고도화

기술경영촉진사업 선정 '대학 연구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 체계 강화'

전북대학교가 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대학 내 연구 기술을 실제 기업 이전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고도화에 나선다.

지난 3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사업(TLO 혁신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번 선정으로 1차 연도 5억 원을 포함해 향후 2년 6개월간 총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북대는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기술지주회사, 참여 연구

실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연구 성과 중 기업 수요와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해 발굴부터 시장 검증,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 창업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맞물린 5개 '프로젝트랩'을 구성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연구성과 창출 플랫폼, 전북-수도권 상생협력 플랫폼, JB Mini Tips 타운 등을 신규 조성해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백기태 산학협력단장은 "기술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 기술이 실제 시장의 창업과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장수군>

장수군 '안성 고신왕지' 보물 지정 예고

지역 역사문화 가치 입증

장수군은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기탁 관리 중인 '안성 고신왕지(安省 告身王旨)'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안성 고신왕지'는 1414년(태종 14년) 4월 22일 조선 태종이 안성(安省)을 강원도 도관찰출척사로 임명하며 발급한 사령장이다.

도관찰출척사는 오늘날의 도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관직으로, 조선 초기 지방 행정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서는 초서체로 작성됐으며 발급 연월일 위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특히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정비되기 전 사용된 문서 명칭인 '왕지(王旨)'가 남아 있어 조선 초기 국왕 문서의 형식과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고문서로 의미가 크다.

또한 작성 시기가 이른 조선 초기 문서인 데다, 후손인 광주안씨(光州安氏)의 사당인 안성(安省)에 보관되어 오던 기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 온 점도 높

이 평가받았다.

이번 지정 예고는 2026년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분과 제1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2일 대한민국의사관보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현재 안성 고신왕지는 광주안씨 사당공후 서령공과 계암중종이 소유하고 있으며,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기탁 관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지정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보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안성 고신왕지의 보물 지정 예고는 장수군이 간직한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며 "최종 보물 지정까지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굽히지 못한 인생살이' 김수길 자서전 출간

김수길씨가 '굽히지 못한 인생살이' 40권을 지난 1일 출간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2026년도 시범 사업 인생이야기 기록작가단 사업에 참여한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김수길 씨는 자신이 굴곡진 삶을 살아오면서 자식, 친인척, 동창, 친구들에게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도움 준 고마움, 가족들의 헌신봉사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책을 통해 전했다. 이에 협조해 준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인생기록작가단 박영진 작가의 협조에 고마움을 표했다.

새마을운동을 했던 친구가 "어~이 수길이 친구 자네는 자서전을 한 권 써도

재미있을거야 하며 책을 써보라"고 권유했지만 그간 차마 쓸 용기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의 제안을 받아 이번에 출간을 하고 보니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어린 나이에 6.25를 겪으며 빨치산들이 집 헛간 바닥을 파서 묻어 둔 양식을 빼앗아 가며 며칠 후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그때 굶아주겠다며 가져간 양식을 지금까지, 아니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지만 민족상잔의 비극 6.25 같은 전쟁은 우리나라에 없어야 한다"고 평소 지론을 밝히고 있다.

이와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에서 8년차 일을 하면서 내가 살고있는



<사진=한중문화협회>

동네에 달맞이꽃, 꽃 잔디 등을 식재해 동네를 가꾸자 개구쟁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오며 꽃 활아버지 이거 잡주세요하며 건네주는 음료수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산뜻한 청량제 아닌가 싶다"고 그는 전했다.

/장정철 기자

'고창군 민속경기대회' 성황

고창군이 지난 3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2026 고창군 민속경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민속경기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읍·면 선수단 600여 명이 참가해 제기차기, 고리걸기, 투호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며 화

합과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건강한 경쟁 속에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또한 전통 민속경기를 매개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의미를 더하며,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민속경기대회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읍·면이 하나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통 민속문화 계승을 위해 다양한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오는 11일 부안농악기반 '수성당개암할미의너른품' 공연

부안군은 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전통예술원 타무, 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주관하는 2026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실공연 '수성당 개암할미의 너른 품'이 오는 1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자연(하)의 소리를 잊어 버린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농악 및 띠뱃놀이와 같은 전통 공동체 의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 신화가 다시 화해하고 상생하는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치유와 희망의 종합 연희극이다.

특히 이번 상실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부안농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문예술단체인 전통예술원 타무가 주축이 돼 무대를 이끈다.

공연은 오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말 저녁 7시에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성당 및 매장테마관 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인문학 공모 선정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정부 인문학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1억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세대별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일 맺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이 주관하는 '모두의 인문학' 공모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인구 감소를 겪는 정읍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일상생활권 안에서 인문학을 친숙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읍(井邑)이라는 도시 이름에 담긴 '우물'의 상징성과 과거 동학농민군의 자치 실험이었던 '집강소' 정신을 결합했다. 이에 따라 '우물이 있는 문화집강소 정읍, 동학

으로 있는 공존의 인문학'을 큰 주제로 삼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75회에 걸쳐 과정을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자체와 거점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상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시민 참여형 역사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기록을 통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록관에서 열리는 '익산'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전시된 기록물을 통해 익산의 숨은 이야기와 기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기록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익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보고, 기록 속에 담긴 단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퀴즈 탐험에 참여하게 된다. 퍼즐과 퀴즈를 풀며 익산의 다양한 모습과

역사,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를 흥미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소중한 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하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학생과 시민 누구나 찾아와 쉬어가며 배울 수 있는 열린 기록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기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익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 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p>공모 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p> <p>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p>	<p>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등학생</p> <p>출품 형식 8절지 도화지(B4 용지)</p> <p>출품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small>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 5층</small></p>
---	---

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 국회의원상

기타 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전북타임스신문

군산 금강도서관, 道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종합 1위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도내 44개 참여 도서관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도서관 운영 전반을 정량·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예산·장서·사서 등 투입 부문 △자료 대출·독서 프로그램·정보기술 서비스 등 산출 부문 등이다. 지난 2022년 8월 개관한 금강도서관은 신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가족친화적인 '체류형 공공도서관'을 지향해 왔다. 특히 '그림책'을 특화 주제로 삼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독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강도서관은 한 해 동안 시민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도서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장벽을 낮추는 포용적 서비스 확대에 힘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강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필수처이자 수준 높은 지식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기록 속 익산 탐험 떠나요"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기록을 통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록관에서 떠나서 익산'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기록관을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느끼고, 전시된 기록물을 통해 익산의 숨은 이야기와 기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기록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익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보고, 기록 속에 담긴 단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퀴즈 탐험에 참여하게 된다. 퍼즐과 퀴즈를 풀며 익산의 다양한 모습과 역사,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를 흥미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기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익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재준 군산시장 오션팔레트 현장 직접 점검

군산시가 오는 10일 정식 개장하는 해양 레저파크 '오션팔레트'의 임시개장 첫날인 3일, 김재준 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준비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오션에비뉴에서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해양체험관, 서핑장, 인공파도풀, 인피니티풀, 레저레이크, 캠핑장 등 주요 시설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이용객 이동 동선과 안전 시설, 안내체계, 응급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식 개장 전까지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레저레이크에 대해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 향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장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션팔레트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명소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익산, 창업자 지원 강화 2(題)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최대 30만원 지급

정읍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인 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최대 2곳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유흥업소를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이거나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곳도 지원받지 못한다.

시는 점수가 끝나면 자격 요건과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창업경진대회 개최

아이디어 발굴 총력

익산에서 전북 지역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선보이는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다.

익산시 중앙년 기술창업센터는 지난 3일 전북중앙년 기술창업센터, 군산중앙년 기술창업센터, 전주1인창조 기업지원센터와 함께 '2026 전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영 ON, 창업 START!' 경험에 가능성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전 14개 팀이 참가해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겨뤘다.

또한 창업·투자 분야 외부 전문가 3인이 참여해 △아이템의 창의성과 차별성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창업 아이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이효선 익산시 중앙년 기술창업센터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예비창업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맛리단길' 유망골목상권 선정

브랜드 개발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군산시 월명동 구영7길 일원인 '맛의거리 맛리단길 골목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역상권육성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해 제도권 상권으로 성장시키고, 상인 조직의 자생력과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유망골목상권에는 전국 50곳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익산과 군산 두 곳만 이름을 올려 지역 상권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맛의거리 맛리단길'은 군산시가 골목상권이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한 이후 선제적으로 지정된 상권이다. 이번 유망골목상권 선정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특화 상권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4억6,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객주상회 브랜드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상인 협업 행사인 '1899 객주시장' 운영 등 상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동 마케팅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군산시는 기존의 주간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야시장 등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간 유동 인구를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인회와 상권기획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 기획형 사업을 추진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상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맛의거리 맛리단길은 근대역사의 정취와 골목마다 자리한 맛집이 어우러진, 군산만의 색깔이 뚜렷한 상권"이라며 "무엇보다 상인들이 스스로 야시장을 열며 상권을 가꾸는 자생적 역량이 이번 선정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 점포를 넘어 골목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상권 생태계를 만들고,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에 행정의 지원을 더해 군산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현장 중심 행정 '박차'

이학수 시장, 주요 사업장 찾아 안전·공정 점검

정읍시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지난 3일 주요 사업장 내 곳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로 확장 공사 현장, 정읍역과 역 광장을 차례로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운영 준비 실태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부터 이어 온 현장 행정을 강화해 사업의 완성도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가지 야양산 일원에 들어서는

치유의 숲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내달 준공을 앞둔 이곳은 치유센터와 숲길, 명상 쉼터 등을 갖춘 산림 휴양 시설이다. 이 시장은 진입 도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쓰이는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를 찾았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철저한 수질 관리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다음으로 서부산업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이 사업은 교통 혼잡 해소와 산업 단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공사 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교통 처리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정읍역을 방문해 역장과 면담을 하고, 정읍의 관문인 역내 시장 홍보 방안, 관광 활성화 계획,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역사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9기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곳은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동안 이어온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주요 사업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교육형 여행 프로그램' 본격 운영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 문화자원 활용 활동

익산시가 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형 여행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익산시는 지난 3일 '그레이트한(韓) 익산 여행' 운영을 시작하고, 이일여자중학교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지역브랜드×콘텐츠×기획 체험 코스'를 진행했다.

'그레이트한(韓) 익산 여행'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교장

바로알기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산 교육지원청,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프로그램은 익산의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 교육으로 총 2개 코스로 운영된다. '산업×역사×진로 체험 코스'는 한문화의 방상지인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지역 대표 식품기업을 방문해 식품산

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브랜드×콘텐츠×기획 체험 코스'는 함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인문학 기반 지역브랜드를 체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활동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지역 자산을 단순히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체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외국인 '승급지원금' 신청 간소화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군산시는 지역기반비자(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관내에 정착한 외국인 우수인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승급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시는 기존 방문 신청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급지원금 신청은 평일과 토요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근로자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산산업단지북쪽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센터는 월 1회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원금 전달 등

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역기반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군산시에 1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1회 지급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지역기반비자 소지 외국인은 261명이다. 시는 이번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청 부담을 줄이고 수혜율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외국인과 토요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근로자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산산업단지북쪽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센터는 월 1회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원금 전달 등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 유료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

가족배려주차장 신설

정읍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11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시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여유롭게 도시 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주차 무료 시간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기존에 여성과 어르신으로 분산돼 있던 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통합해 신설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누구나 넓고 안전한 주차 구역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 저출산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배려 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3배체 굴' 시범양식 추진

산란 소모 에너지

성장에 집중해 상품성 우수

군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양식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옥도면 장자도 해역에 신품종 시범양식 어장을 조성하고 3배체 굴 치패 3만 마리를 입식했다. 지난 3일 밝혔다.

이번에 입식한 3배체 굴은 일반 굴과 달리 번식능력이 없어 수산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커 상품성이 우수하며, 해외에서도 수요가 높은 고급 수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은 그동안 대표 수산물인 김 양식 산업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를 거뒀지만,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단일 품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김 생산이 이루어지는 10월



부터 이듬해 4월을 제외한 기간에도 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품종으로 3배체 굴을 선정하고,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신품종 패류 양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자원 전문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고군산군도 해역의 수온과 염분 등 기초 환경을 조사하고, 굴의 성장률과 비만도, 생존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를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초산교 사거리 교통 환경 개선

정읍시가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컸던 초산교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구조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초산교 사거리는 평소 통행량이 많지만 보행자 이동 경로가 복잡하고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시는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가운데 하나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2025년부터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교차로와 가깝게 붙어 있던 횡단보도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다시 설치했다. 실제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도로 가장자리에 안전 울타리를 세워 무단횡단을 막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들어 처음 마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로 초산교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부안군, 농업인 안정 최선 2(題)

고창군 '출입국 서비스' 호응

고창군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하며 농가와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고창을 방문해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 연속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간 근로자와 농가에서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농반기에는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해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비롯해, 이동 마약검사, 이동 은행 서비스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한 '고창형 현장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동 마약검사는 법무부 지침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체류 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 은행 서비스는 통장 개설과 금융업무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근로자와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신상품 수수 '고은찰' 연시회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부안군 동진면 동진리 시범포장에서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특화형 작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현장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정부의 농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대응하고 부안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작곡인 수수 '고은찰'의 재배기술과 기계화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부터 수수가 전락작물직불금 하계 지급대상에 포함돼 ha당 24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기계화가 가능하고 수량성이 우수한 고은찰 품종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생략화 준비를 지원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약 3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품종 수수 고은찰은 도복에 강하고 범용 품자인 수확이 가능한 재배에 적합하며 기존 품종보다 종실수량이 약 26%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고은찰 품종 특성 설명, 휴립과풍기를 활용한 작과 시연이 진행됐으며 농업인들과 사업 추진 방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잡곡의 국내산 원료곡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김제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총력"

11월까지손씻기체험관운영

김제시보건소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손씻기 습관 형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보건소 옆 호흡기센터 내 '올바른 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관은 관내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손씻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손씻기 필요성과 올바른 손씻기 방법 교육영상 시청 △손세정제검사와 형광로션을 활용한 손씻기 전·후 비교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손세정제검사와 교육자료를 1회당 2주간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올바른 손씻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손씻기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여성 생활체육대회' 성황

부안군은 2026 부안군 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일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안군체육회(회장 전동일)와 여성체육위원회(위원장 김정자)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여성체육의 저변 확대와 여성체육인들의 건강증진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12개 읍·면의 여성체육인과 내빈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인 마실트르트장과 숲가라리들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본경기(레크리에이션 및 체육활동), 경품 추첨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본 경기는 관내 12개 읍·면을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에어스포즈, 컬링, 줄다리기 등 협동심을 요구하는 다채로운 종목

을 함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격려사에서 "생활체육은 공동체의 화합과 연대를 키우는 든든한 매개체인 만큼 앞으로도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고창군-부산 동래구 청소년시설, 상생 발전 협력

고창청소년시설들과 부산 동래구 청소년센터가 지난 2일 부산 동래구 청소년센터에서 양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부산 동래구청소년센터와 고창군 대표 단체인 고창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해 고창군청소년수련관,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성내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2026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에 '고창군-부산 동래구 청소년 마음있기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한 교류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양 지역 청소년 시설 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정보 공유'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위한 지도자 네트워크 상설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 청소년들은 대도시 문화 체험 및 동래구 청소년 시설 등을 견학하고, 동래구 청소년들과의 친선 교류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시민 행복 실현 집중"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시정 운영 방향과 민선 9기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정성주 시장은 "민선 8기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김제의 가능성과 자력을 하나씩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며 "민선 9기는 그동안 쌓아 올린 기반 위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김제시는 역대 최초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확보했으며, 통합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마경 6·7공구 방수제와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지역의 관할권을 확보하고 김제상공회소 단독 설립, (주)동진강유계소의 지평선세마루 전환, 쿼다 스파랜드 재개장, 성덕면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 등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주요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왔다.

김제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미래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인구정책 강화 △민생경제 회복 △농업 혁신 △시민주권

확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행복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저 (주)김제공항부지를 AI 산업과 중차 산업이 융합된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와 내부 개발 가속화로 김제를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해양항만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구정책과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청년 성장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근로자 든든한 쉼터 지원 등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 농업인 양성, 맞춤형 영농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 1천 명을 육성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 수도로서 김제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실천하며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올 여름 휴가는 고창 명품 숙소에서 힐링하세요"

민선 9기 고창군이 한옥마을, 글램핑, 유스호스텔 2곳의 명품 숙박시설 직영운영을 통해 '관광객 2천만 시대' 달성에 나선다. 개방형 예약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으로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읍성 한옥마을(고창읍 동리로 128)의 민간 위탁을 마무리하고, 군 직영으로 전환해 본격 손님 맞이에 들어갔다.

공유, 비, 노후철 등 유명엔제인이 묵어간 한옥마을은 11객실 규모로 운영된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단체·체험 방문객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바닷가에선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의 글램핑시설(심원면 두어1길 55-25)도 군 직영으로 전환해 9개동 규모로 운영중이다.

특히 7~8월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인 '갯벌SEA네마'를 총 12회에 걸쳐 선보인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체류형 관광을 더욱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소비도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우리쌀·로컬푸드 활용 '식생활교육' 추진

김제시는 우리쌀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김제시 식생활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쌀 활용 전통떡 만들기 와 로컬푸드 활용 음식 만들기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관내 영·유아 및 시민 등 총 900여 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쌀 소비촉진 식생활교육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쌀을 활용한 전통떡인 쫄면 만들기 체험을 통해 쌀의 소중함과 전통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식생활교육은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파프리카 컵 리조트 △치킨 토마토 토마토 랩 △스프링 오믈렛 등 다양한 음식 만들기 실습을 통해 로컬푸드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익히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건강한 삶은 우리 땅에서 자란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시작된다"며, "로컬푸드와 우리쌀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시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농촌지역 아동돌봄 시설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부안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2일 상생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지역 아동돌봄시설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종사자, 부안군 및 부안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약50명이 참석해 농촌지역 아동돌봄 정책 변화와 현장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세미나는 아동돌봄 정책 변화와 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해, 이어진 토의에서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돌봄 정책과 지원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농촌지역 아동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성수 기자

고창군 '청년마을 만들기' 본격 추진

행안부 주관 공모 선정 "청년 성장 환경 조성"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책기지' 사업을 본격적인 추진한다.

지난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 대신면 서점마을에서 관계기관과 청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마을 사업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고창 청년마을 '비책기지'의 2026년 사업계획과 향후 3년간 추진 로드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는 청

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일과 삶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업이다.

고창 청년마을 '비책기지'는 대신 서점마을을 거점으로 '머무르고, 배우고,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지역을 경험하는 청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을 프로젝트 및 교류 △책과 문화를 활용한 북캠프·독서모임·문화기획 △지역 농산물 활용 로컬콘텐츠 및 상품 개발 △청년 창업

프로젝트 및 로컬 비즈니스 △청년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청년주거·생활 안내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이다.

특히 청년들이 단순히 지역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일거리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운영해 고창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착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행정과 민간, 지역주민이 긴밀히 협력해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강화

대응상황 점검 및 안전365 캠페인 전개

김제시는 지난 2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위원장 최준열)과 함께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와 용전마을에서 여름철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농촌진흥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시의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예방요원의 활동 상

황과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용전마을회관에서는 예방요원들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여름철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요원 1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마을회관과 영농현장을 찾아 고령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 안내문자 발송, 농업인 교육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 폭염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현해요'를 주제로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자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나홀로 작업 자제 등 농작업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예방용품을 배부하며 안전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관광택시 확대 운영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부안군은 지난 2일 관광택시 활성화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광택시 종사자 간담회와 현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관광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종사자 2명을 추가 모집해 운영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관광택시 운행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관광객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렴 운영 서약을 실시했다.

또 관광택시 운영 활성화와 방안에 대

해 의견을 나누는 등 종사자 간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관광택시는 관광객과 최소 3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동행하며 부안의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서비스다.

관광객과 장시간 함께하는 특성상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이 여행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은 관광 안내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외인 현장 교육에서는 관광택시 종사자와 문화관광해설사를 1대 1로 매칭해 체서강과 내소사 등 부안의 대표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며 전문 해설을

청취했다. 이동 과정에서는 관광지에 담긴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색 등 부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관광객 응대 요령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관광택시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관광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실용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광택시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생활 인프라 안전망 강화 2(題)

남원시, 노후상수도 현대화 '본궤도'

남원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이 기후부의 사전기술 검토보고서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시는 2029년까지 월락·남원 배수지권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로 20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전역 급수구역에 대해 블록 구축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관망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도통동 동다사거리 일대의 노후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월락·남원 배수지권의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향상

시키고,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 구간 일부가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도로 굴착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 및 생활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공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이고 안정적인 급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30일 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단은 지난 1분기 위원회 안전 이행사항으로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내 범죄 취약 사각지대에 보행자 확인이 용이한 안심반사경을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 사업과 연계해 지난 4월 19일 범죄 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2분기 위원회에서는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목 정비와 공설공원 묘지의 안정적 운영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

설비 확충·현대화 추진을 의결했다.

특히 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무인경비 시스템과 연동하는 화재 감시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환경 개선, 안전용품 지급 범위 확대, 자체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도 함께 의결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이번 2분기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현장의 위험 요인과 건의 사항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귀를 기울여 전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순창군>

순창군, 기업과 여성일자리 확대 '머리 맞대'

22개 기업네트워크 간담회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 논의

순창군은 지난 3일 행복누리센터에서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내 2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 일자리 확대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씨엔티(주) 순창공장,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토당식품영농조합법인 등 관내 22개 기업의 대표와 인사담당자 25명이 참석했다. 여성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어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관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2007년부터 순창군 여성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취업 연계,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지역특산물 활용 전통주 12종 '결실'

교육생개발 시제품 평가회 열여 딸기생강꽃감 활용 주류 공개

완주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전통주 개발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일 완주군은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행정 관계자, 연구회 회원,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완성된 완주 전통주 시제품 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시음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완주군 전통주 제품개발 및 조직화 교육'을 통해 완주군 공동체(품목농업인연구회, 완주곶감연합회, 구이가공센터) 교육생 15명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시제품의 상품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완주의 대표 농작물인 딸기, 생강, 고구마, 복숭아, 감초, 꽃감, 포도 등 원물의 특성을 살린 총 12종의 시제품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는 대중적인 타주는 물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와인, 그리고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 증류주와 리큐르 등 다채로운 주류가 소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완주 원물 고유의 맛과 향이 은은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완성도가 높아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군은 오는 8월 중 2차 시음회를 개최해 완성도를 높인 뒤 본격적인 상품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접 연구하고 개발한 시제품의 상품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완주의 대표 농작물인 딸기, 생강, 고구마, 복숭아, 감초, 꽃감, 포도 등 원물의 특성을 살린 총 12종의 시제품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는 대중적인 타주는 물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와인, 그리고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 증류주와 리큐르 등 다채로운 주류가 소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완주 원물 고유의 맛과 향이 은은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완성도가 높아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군은 오는 8월 중 2차 시음회를 개최해 완성도를 높인 뒤 본격적인 상품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꿈드림, 학교밖청소년 캐나다 수학여행 지원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현정, 이하 완주꿈드림)는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캐나다 국제교류 프로젝트 '로키비키(Rocky Viki)'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캐나다 밴쿠버와 쿠키틀람, 로키산맥 일대에서 진행되며 학교 밖 청소년 3명과 지도자 4명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완주군 아동참여예산 제안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과 자연 체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밴쿠버와 쿠키틀람에서는 YMCA 청소년시설 방문, 지역사회 탐방, 현지 청년 및 교민과의 만남, 공공시설 체험 등을 통해 캐나다의 청소년 지원체제와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출국에 앞서 영어 원서 읽기, 걷기 실천, 기록 활동 등 사전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매일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꿈드림은 최근 완주군청 아동친화과에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계획,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출국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보절면, 고립 어르신 마음건강 돌봄 강화

보절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대기)는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고령으로 치매 위험성이 높고 독거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돼 우울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점차 증가함을 파악해 조기 개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내마음 살펴보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절면 맞춤형복지팀·보건소 치매관리팀·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검진과 상담 및 건강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치매선별검사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뇌파검사 등을 통해 주민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및 관리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치매 및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정신건강상담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상담 제공, 고위험군 전문가 연계 등 전인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운영 성료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기성)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를 전했다.

센터는 지난달 9일 삼례읍 어르신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1일 장애인 날 기념행사, 16일 대한적십자사 완주군협의회 사랑의 효잔치 23일 동산면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다.

사랑의 밥차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공동체의 온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장애인 날 기념행사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고, 대한적십자사 완주군협의회와의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IBK기업은행의 후원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봉사단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곳곳에 따뜻한 한 끼와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혹서기 안전한 운영을 위해 7-8월은 잠시 운영을 중단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1호 결재 '1000억 추정'

농업·민생 중심 예산 집중 투입 교부세·순세계영여금 재원 활용

양충모 남원시장이 민선 9기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1호 결재하며 '시민주권 시대'와 '경제도시 남원'을 향한 본격적인 뜻을 펼쳤다.

양 시장은 '1호 결재'로 추정 예산 편성을 선택한 것은, 정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예산'으로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이다. 아울러 핵심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남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

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남원시는 정부 1차 추경으로 확보한 교부세 337억 원과 순세계영여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율 구조조정을 실시해 가용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맞는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와 저수지 안전 강화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을 우선 반영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이상 기후 피해복구,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등

농가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양충모 시장은 "경제도시 남원으로서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재정 건전성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진정한 경제도시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시민의 참여와 연대 속에서 완성되는 만큼, 사람이 모이고 감동의 문화가 흐르며 시민의 삶이 따뜻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8월 24일 개최되는 제28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농가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양충모 시장은 "경제도시 남원으로서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재정 건전성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진정한 경제도시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시민의 참여와 연대 속에서 완성되는 만큼, 사람이 모이고 감동의 문화가 흐르며 시민의 삶이 따뜻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8월 24일 개최되는 제28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장류축제 먹거리장터 참가 부스 공모

K-푸드·향토음식 등 28개 부스 지역업체 우선 선정 방침

순창군과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미식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축제 먹거리장터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창전통도축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운영되며, K-푸드와 세계음식, 향토음식 등 28개 인파의 부스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순창 장맛한상과 장맛백반, K-분식, 장류를 활용한 디저트 등 K-푸드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 순창삼합과 순대국밥 등 향토음식, 휴게음식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K-푸드와 향토음식 분야는 순창에서 생산된 쌀과 장류 원료를 사용해 지역의 맛과 특색을 살릴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관련 요건을 갖춘 업체로, 축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향토음식 분야는 순창군 내 영업장을 둔 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K-푸드와 세계음식 분야는 지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

소세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먹거리장터는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격과 위생,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메뉴는 1인분 기준 1만 원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량 메뉴 판매도 적극 권장한다. 또 다용용기 사용과 통합결제시스템 운영, 친환경 축제 실천 등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에도 참여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은 순창장류축제 홈페이지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모집 분야는 순창 장맛한상과 장맛백반, K-분식, 장류를 활용한 디저트 등 K-푸드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 순창삼합과 순대국밥 등 향토음식, 휴게음식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K-푸드와 향토음식 분야는 순창에서 생산된 쌀과 장류 원료를 사용해 지역의 맛과 특색을 살릴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관련 요건을 갖춘 업체로, 축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향토음식 분야는 순창군 내 영업장을 둔 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K-푸드와 세계음식 분야는 지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

남원시 사매면 생활거점 2단계 공모 선정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공동체 활성화·인력 양성 추진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별공모에서 사매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선정돼 총 20억 원(국비 14억, 지방비 6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참여하였고,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및 대면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매면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했으며 매화언덕 신축, 복직활동관 리모델링, 혼



<사진=남원시>

사매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종합계획도

불문화거리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및 인적자원을 양성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는 총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초기에는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전달 인력을 양성해 이후 2031년까지 배후 마을 대상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초기에는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전달 인력을 양성해 이후 2031년까지 배후 마을 대상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서 "구급대원 현장 폭언·폭행 근절해야"

완주소방서(서장 직무대행 소방행정과장 임병환)는 최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구급활동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현장 활동이 방해 받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응급환자의 구조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완주지역에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구급활동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주소방서는 주취 상태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구입 지원

무주군이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여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고 공고일(2026.7.1.) 이후 신규 등록한 6~11인승 패밀리카 구입비의 10%를 최대 500만 원까지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18:00)까지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하다.

결과는 오는 27일 무주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치유음식 교육생 모집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치유음식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치유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역 식문화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총 3회에 걸쳐 농산물가공센터 실습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임실군민이면 신청가능하다.

이론교육은 △치유음식에 대한 이해와 △식재료 활용방법 △치유음식 생활화 방법이 진행되며, 실습교육은 △심혈관 건강과 고혈압 예방 △성인병 예방과 소화기 건강 △혈당관리와 동맥경화 예방 등 건강주제별 치유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교육으로 산초깨죽, 산나물두부스테이크 등 총 10여 종의 치유음식을 배우며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방문 또는 이메일(hyejin3074@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여름 식탁 안심!" 진안로컬푸드 안전성 입증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진안점)에서 판매 중인 여름 제철 농산물이 잔류농약 검사에서 전 품목 '안전' 판정을 받았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3일, 실제 매장에 진열된 블루베리 6점, 오이 3점, 참외 1점 등 총 10점을 무작위 수거해 잔류농약 463종에 대한 다성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블루베리 전량과 오이 1점 등 7점에서는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3점(오이 2, 참외 1) 역시 농약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수거된 10개 품목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거·분석 역시 소비자의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중 안전망'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4년 9월 진안로컬푸드 신규 매장(진안점) 개장 이후 잔류농약 분석 건수가 매년 1.5배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진안군은 출하 전 안전성 검사(1차, 전수검사)는 물론 이번호와 같은 유통 중 매장 불시 모니터링(2차)을 촘촘하고 흔들림 없이 가동 중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임실 보건의료원 진료 확대

무주군, 외과 진료 재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무주군이 그동안 공중보건 외과 전문의로 진료 공백 상태에 있던 무주군보건의료원 외과 진료를 재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외과 전문의를 채용했으며 외상·화상·상처봉합 등 일반외과 진료는 물론, 치핵과 치루 등 항문질환까지 진료 범위를 확대했다.

무엇보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외상 및 응급환자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어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 확보에 대한 큰 기대가 모이고 있다. 25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

으로 지난 1일 진료를 시작한 백영기 무주군보건의료원 외과 과장은 제일항장과 과 원장, 석정웰파크 병원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외과 과장 등을 역임했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원과장은 "외과 전문의 채용으로 외과는 물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상시 운영되고 산부인과는 외부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하는 등 필수 과목 진료가 모두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겠다"라며 "보건의료원에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기반이 갖춰진 만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료체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소아청소년과 진료개시



월요일·목요일 진료

임실군보건의료원(원장 김대곤)은 6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시한다. 이번 진료개시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 소아 예방접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아 전문 분야에 대한 진료를 통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다.

임실군보건의료원(원장 김대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개시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호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일은 월요일, 목요일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민선9기 출범 첫 청원조회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 비전

장수군은 최훈식 군수가 민선9기 취임 이틀날인 지난 2일 군민회관에서 청원조회를 열고 상반기 유공 공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데 이어 향후 4년간 추진할 국정 비전과 방향을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청원조회에서는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상반기 혁신군정상 △상반기 공무원제안 채택자에 대한 시상

이 진행됐다. 상반기 정부모범공무원에는 강은숙

보건의료사업과 보건행정팀장과 박성규 물관리과 하수도팀장이 선정됐다.

혁신군정상은 최우수상에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이, 우수상에는 농산업정책과 기본소득TF팀, 축산위생과 축산정책팀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격려금과 함께 성과가점이 부여됐다.

공무원제안 채택자 시상에서는 은상에 농촌지원과 스마트팜운영팀 김병석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동상은 건설교통과 교통팀 안지환 주무관, 농촌지원과 스마트팜운영팀 노경미 팀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이현 주무관이 수상해 부상이 함께 지급됐다.

최훈식 군수는 "처음 마음 그대로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말이 아닌 성과로 장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장수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장마철 재난대비 안전관리 총력

인명피해 우려지역 유형별 관리 신속한 대피체계 운영

임실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임실군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갖췄다.

우선,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상황관리 및 직보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상황전파와 초동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발생원인에 따라 △산사태 △하천제재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위험에 따른 정량적 대피기준을 마련해 기준도달 시 읍면장이 즉시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대피 설명회와 주민대피 지원단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인근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주민대피 지원단과 1대1로 연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해 협업부서 10개부서와 12개읍면동 총 43명의 공무원을 비상배치하고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취약시설 안전 점검도 마쳤다.

임실군은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취약구간, 배수 펌프장,

우수 저류시설 등 주요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관리 실태와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하천 내 퇴적토와 지장물을 제거하고 가도를 정비해 원활한 물흐름을 확보했으며, 수방자재 확보 현황과 배수시설 및 방제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재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응도 강화했다. 산림재난대응단과 숲가꾸기 패트롤을 중심으로 낙석과 붕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험징후 발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와 비상 대응시스템도 재정비했다.

아울러, 군민들이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전광판,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주민 행동요령과 대피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춘성 군수, 민선9기 현장행정 본격화

장마철 재난취약지역 점검 위험요인 사전 제거

민선9기 첫 공식 행보로 통합돌봄 현장을 찾아 군민의 삶을 살핀 전춘성 진안군수가 이번에는 장마철 재난취약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진안군에 따르면 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춘성 군수 주재로 재난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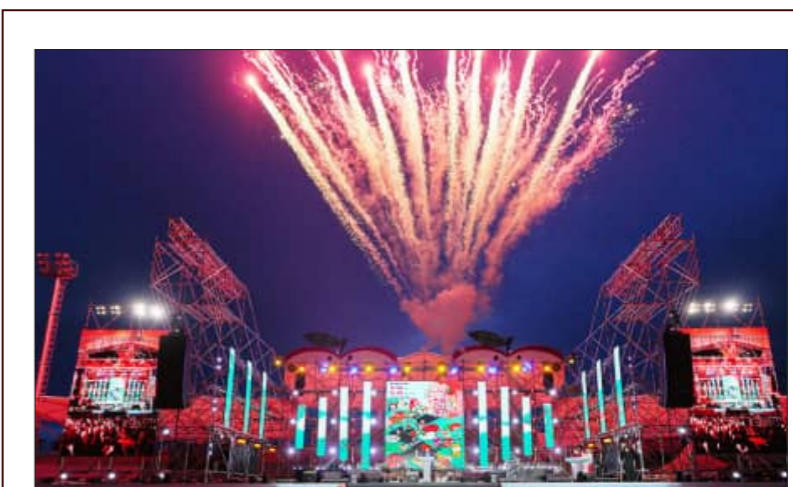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점검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 군수는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 공사장 내 배수시설과 가시성 설치 상태, 위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어 불철 산불 피해지역 내 산사태

취약 구역을 방문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예찰활동과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했다.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찰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을 찾아 차수시설 설치 상태와 배수펌프 작동 여부, 비상 대응체계 등을 확인하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라인업

손빈아·민경훈·박현빈 등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을 대표하는 농축산물 축제인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축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첫 날인 9월 10일에는 대학가요제 리미트 무대가 펼쳐진다. 추억의 명곡으로 사랑받아 온 샌드페블즈와 옥승8이 출연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감성 무대를 선보인다.

둘째 날인 9월 11일에는 축제 개막식에 다양한 장르의 인기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다. 장수군 홍보대사인 가수 최재명, 트로트의 여왕

아모르파티 김연자, 떠오르는 트로트스타 손빈아, 걸그룹 유니스, 가수 배기성 그리고 정윤영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셋째 날인 9월 12일에는 감성과 록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이 준비된다. 민경훈과 감성 보컬 텐데이키즈 그리고 밴드 뮤즈그레인이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9월 13일에는 흥겨운 트로트 무대가 펼쳐진다. 인기 트로트 가수 박현빈과 오로라 및 윤세준이 출연해 관람객들과 함께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장수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한우와 사과를 중심으로 공연, 체험, 먹거리 등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국 관람객들에게 장수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완료

군민·등산객 안전 확보

임실군이 산림 휴양 및 레저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군민과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수면 태평리 일대 임도(林道) 주변 안전 취약지역 9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 지역에서 조난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나누어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한글 2글자, 숫자 8자리)다. 소방, 경찰 등 구조기관과 위치를 공유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임도는 일반 도로와 달리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의 접근이 지연될 우려가 크지만,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위급 상황 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국립한글박물관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

장수군은 임성한 국립한글박물관이 지난 2일 장수군을 방문해 최훈식 장수군수와 면담을 갖고,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수군이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놀이터 지역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한글문화 확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은 국

립한글박물관이 추진하는 한글놀이터 지역 확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장수군은 지난 1월 공모 신청 이후 최종 선정됐다. 이후 국비 5억 원을 비롯해 특별교부세 4억 원, 특별조정금 1억 5천만 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와 다문화가정, 군민들이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 주민설명회

진안군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앞두고 읍면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일 안전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신청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방식은 물론 기본소득 사용 지역과 사용처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주소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역과 일부 사용기준이 달라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군은 모든 읍·면을 직접 방문

해 맞춤형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설명회 일정은 △2일 안전면 △3일 용담면, 진안읍 △7일 성수면 △8일 백운면, 마령면 △9일 부귀면, 동향면 △10일 상전면, 정전면, 주전면 등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진안 배방카드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명탐정공인행정사사무소
부안군에 기부금 150만원 기탁**

부안군은 명탐정공인행정사사무소 이광호 대표가 부안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대표는 최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에도 동참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나눔을 연이어 실천했다.

이 대표는 오랜 공식 경험과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와 행정심판, 민원서류 작성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와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뒤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봉사하고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광호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이번 기부가 부안의 발전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 동산동 '이도령갈비탕'
착한가게 가입으로 나눔 실천**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이도령갈비탕(대표 허지수)'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도령갈비탕은 정성껏 우려낸 갈비탕과 푸짐한 밀반찬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음식점이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허지수 대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착한가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명경 동산동장은 "착한가게 가입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해 주신 허지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과 문화활동

**선운사고양읍성 등
탐방 소통 시간 가져**

완주시니어클럽이 최근 노인일자리 역량활용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전북 고창 일원에서 문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활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자 간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고창 선운사와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권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노인일자리 역량활용사업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노인일 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시니어클럽이 최근 노인일자리 역량활용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전북 고창 일원에서 문화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완주시니어클럽>

고창 상하면지사협, 골목길 '안심불빛 벽부등' 설치

**택동·성남 마을 총 35대 설치
골목길 방범안전 강화**

고창군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광월, 민간위원장 전봉식)가 택동·성남마을에 '안심불빛 벽부등' 총 35대를 설치했다.

마을은 골목길이 좁고 여러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야간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방범에도 취약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벽부등 설치로 골목길 조도가 개선돼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전봉식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체감형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월 상하면장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상하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경천면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삼계탕 대접

완주군 경천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명례)가 지난 3일 경천에인 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삼계탕·수박 나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도 동참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직접 나눠주며 함께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따뜻한완주사랑의연탄나눔운동에서 생담과 경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봉구)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재관), 경천수박 나눔행사(대표 김종춘)에서 정성어린 음식과 선물을 후원했다.

덕분에 행사장소를 찾은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서로 안부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 알파벳어린이집 학부모 일동 장학금 기탁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알파벳어린이집 학부모 일동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27만 5000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알파벳어린이집에서 개최한 프리마켓 행사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으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알파벳어린이집은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총 71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한희연 운영위원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 청년·자원봉사자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나서**

익산지역 청년과 자원봉사자들이 나눔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한다.

익산시는 '2026 글로벌 프렌즈 해외봉사단'이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해외봉사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글로벌 프렌즈 해외봉사단은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 소속 대학생과 일반 자원봉사자, 센터 직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으며, 항공료 등은 개인이 부담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달여 동안 팀별 워크숍과 사전교육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준비해 왔다.

봉사단은 타이빈성 흥하현의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학교 시설 도색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하노이 일대에서 문화탐방과 교류활동을 진행하며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국제 우호 증진에도 힘을 기울인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신풍동 '토박이 한식뷔페'
착한가게 동참**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일 신풍동 착한가게 22호점에 가입한 토박이 한식뷔페(대표 김경순)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은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경자 위원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토박이 한식뷔페를 발굴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박정완 신풍동장과 최호길 공동위원장은 김경순 대표에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토박이 한식뷔페는 김제시 금산면 금평로 311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기부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게 됐다.

김경순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인사(2026. 7. 6.)

- 농촌진흥청 인사발령**
 □ 도농업기술원 국장(직위승진)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재호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피정의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신정호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하명화

함께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

환경을 위한 실천, 작은것부터 시작하세요!

- 엘리베이터 이용대신 계단 이용하기**
- 퇴근시, PC 등 사용하지 않는 전원끄기**
- 불필요한 메일 삭제하기**

〈一事一言〉



겹데기만 남은 소리축제, 도민의 신뢰 없이 25주년은 없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세계적인 소리 예술을 아우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를 완성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아름다운 우리 소리가 아닌 조직 내부를 향한 불신의 소리다.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된 축제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 요구는, 단순히 행사를 흔들려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축제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방만과 독단으로 가득 찼던 조직위를 향한 도민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질타다.

가장 먼저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은 조직위의 안일하고 비사실적인 '돈 잔치'다. 지난해 행사사무원에서 적발된 회계 비리는 공공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대담했다.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특정 간부 기본급 48.6% 인상'이라는 특혜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 집행하다가 환수 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업무 추진비를 미리 당겨 쓰는 '신결재' 관행까지 확인됐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치 찜질 돈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했던 말인가.

조직 내부의 인사·노무 시스템 역시 총체

적 난국이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표준근로계약서조차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중재하고 대응할 체계가 아예 부재했다. 조직을 이끄는 집행위원장의 겸직 승인 절차마저 불투명하게 처리됐다. 내부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도 지켜주지 못하는 조직이, 어떻게 전 세계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문화 예술 축제를 기획한다는 말인지 어불성설이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지역 예술인과 지역 업체의 소외'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오늘날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북의 깊은 소리 문화와 이를 지켜온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도민들의 무조건적인 애정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축제의 주인공이어야 할 지역 예술인들은 무대 뒤편으로 밀려났고, 지역 업체들은 참여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축제가 지역 사회를 외면하는 순간, 그 축제는 정체성을 잃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올해 초 조직위는 부랴부랴 8개 분야의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사무국 중심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복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의 지적처럼 "개선방안

을 제출한 것과 실제 개선이 이뤄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관 개정과 같은 핵심적인 제도 개선과 잘못 쓰인 예산의 완벽한 환수 조치 등 눈에 보이는 실질적 결과물이 없다면, 그 어떤 혁신안도 소나기를 피해 가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축제는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다. 일각에서는 25주년이라는 상징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일단 축제부터 치르고 보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를 덮어둔 채 강행하는 축제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굽아 터진 상체를 그대로 둔 채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는다.

조직위는 지금이라도 도의회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형식적인 문서 한 장으로 구령이 담 넘어가듯 위기를 모면하려해서는 안 된다. 잘못 집행된 예산은 단 일 원도 남김없이 환수하고, 투명한 노무 체계를 확립하며, 지역 예술인들을 축제의 중심부로서 다시 모셔야 한다. 25주년이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도민의 신뢰다. 도민이 신뢰하지 않는 축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소리축제 조직위의 뼈를 깎는 성찰과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기고

전북농업기술원 자체 종자생산, 전북 농업 '내발적 발전'의 첫걸음



농업은 한 국가의 주권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안팎의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스스로 고도화해 자생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농업의 내발적 발전을 이끄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일까? 단연 '종자(種子)'다.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국가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전북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가 수립한 올해 벼 우수 증식종 생산 계획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 계획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북 농업 내발적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금년 종자사업소는 지역 기후에 적합한 고품질 벼 종자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 명품 쌀인

'신동진', 신동진의 우수한 미질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도 병해충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신품종 '신동진'을 생산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광1', 독자적인 구수한 향으로 프리미엄 쌀 시장을 겨냥할 '십리향', 그리고 농가의 다각적인 소득원이 되어줄 '다복찰'까지 총 100톤에 달하는 우수종자 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품종별 맞춤형 벼 종자생산 계획은 전북 농업 구조를 내실 있게 다지는 다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 농업의 안정성과 기후 복원력을 극대화한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핵심 품종 '신동진'과 그 유래 품종인 '신동진'을 균형 있게 생산하는 계획은 지역 쌀 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의미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신동진1이 든든하게 받쳐줌으로써, 농가는 기후 재해 속에서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가소득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한다. 고품질 품종인 '수광1'과 고부가가치 향미 시장을 겨냥한 '십리향'의

생산은 양적 성장에 머무르던 농업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여기에 가공용 수요를 충족시킬 '다복찰'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농업은 획일화된 쌀 생산에서 벗어나 시장의 유행과 가공 산업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종자생산 계획이 실행되어 농가로 보급되는 과정이 내발적 발전의 모델이다. 전북에서 자란 최고 품질의 종자를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농민들이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며, 이것이 다시 지역 내 가공·유통망과 결합해 부(富)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외부 종자 수입에 휘둘리지 않고, 전북에서 직접 키워낸 씨앗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는 셈이다.

종자는 그 자체로 미래다. 이번에 수립된 100톤의 종자생산 계획은 우리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종자사업소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올해의 벼 생산 계획이 전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진화를 이끄는 '내발적 발전의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소 이인석

사설

'5극3특'에 전북을 새겨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국가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역개발 계획이 아니다. 향후 10년, 20년 대한민국 산업의 축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 미래전략이다. 이 거대한 판에서 이름을 올리는 지역은 성장의 중심에 서지만, 제외되는 지역은 또 한 번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부처를 찾아 전북의 미래산업을 '5극3특'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보다.

전북은 그동안 국가 전략산업의 변방에 머무는 아픔을 반복해 왔다. 반도체, 첨단산업,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마다 '호남'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정작 전북은 빠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산업 기반은 약해졌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났다.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건의는 단순히 국비를 더 받아오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AI 기반 첨단 로봇, 농생명바이오, 새만금 미래산업, 국가 첨단 연구개발 기능 등을 정부의 국가

성장축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이다.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예산과 기업 투자, 연구기관, 인재 양성이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이번에도 기회를 놓친다면 전북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또다시 국가 산업정책의 주변부를 맴돌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를 찾아 건의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경쟁력, 기업이 투자할 산업 생태계, 전문인력을 키울 교육 기반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경제계도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북을 국가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가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지금이 전북에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건의가 아니라 결과다. 정부 계획 속에 전북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지고, 그것이 국가예산과 기업 투자,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행보는 성공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전북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다.

▲오늘의시

여름 밤 / 정호승

들겻잎에 초승달을 써서
어머님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엔
상추잎에 별을 써서 드려야지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문과 및 대학원 졸업.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청성대'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위령제'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새벽편지',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등이 있다. 1989년 소설시문학상, 2000년 정지용 문학상, 2006년 한국가톨릭문학상, 2009년 지리산 문학상, 2011년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광주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8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계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8
송천지국-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관리 규정 및 실연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백합 청년 이강훈이 꿈꾸는 화훼 농업의 新세벽

‘일상 속 화훼 문화’ 향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D2C 유통 혁신의 현장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농촌은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전례 없는 기후 변화와 인구 감소라는 메가 트렌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전환은 농가 경영의 생존을 가르는 필수 조건이 됐다.

이제 농업은 작물을 길러내어 시장에 넘기는 1차 산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통해 경영을 최적화하며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첨단 융합형 산업으로의 진화 — 이것이 앞으로 전북 농업이 마주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전통적인 4-H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전북 농업의 세대교체를 주도하는 젊은 리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에서 화훼 농장 ‘청운플라워’를 운영하고 있는 이강훈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장(1990년생, 35세)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흙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정통파 청년 농업인인 그는 스마트 팜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화훼 소비문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꿈꾸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완주 봉동의 청운플라워 온실을 찾았을 때, 기자를 맞이한 것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백합의 향연만이 아니었다. 화훼 산업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해 온 청년 농부의 열정, 그리고 농장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와 그의 가족이 치열하게 축적해 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온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 흙에서 피워낸 데이터, ‘청운플라워’의 영리한 ICT 경영

이강훈 회장이 이끄는 청운플라워는 총 1.5ha(약 15,000㎡) 규모의 시설 하우스를 활용해 최고 품질의 백합과 튤립, 프리지어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가 일구어낸 스마트 팜 혁신의 핵심은 값비싼 장비를 들여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품질 화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경영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실용적 애그테크(AgTech)’의 구현에 있다. 이강훈 대표는 “농업은 철저히 계산된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했을 때 비로소 안정성을 가집니다”라고 한다.

이 회장의 확신은 지난 2022년 참여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뚜렷한 성과로 증명됐다. 총 사업비 50백만 원을 투입해 도입한 ‘이동식 양액재배 시스템’과 ‘스마트 ICT 제어’는 청운플라워의 체질을 완전히 바

꾸어 놓았다.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이동식 재배 선반과 식물 성장 주기에 맞춰 정밀 영양 공급 체계는 노동력을 20% 절감시켰고, 정밀한 난방 및 재료비 제어로 경영비 1,000만 원을 아끼는 쾌거를 이루었다. 과거 1억 5,000만 원 수준이던 매출은 스마트 시스템이 안정화 이후 2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화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강훈 회장이 이룩한 기술적 성취의 이면에는, 소비자가 꽃을 대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화훼 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 “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랜 편견에 던지는 질문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꽃은 여전히 경제 상황에 너무나 민감한 작물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는 항상 뒤로 밀리곤 하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심정을 토로했다.

청운플라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이강훈 회장의 가장 가까운 경영 파트너인 그의 부모님은 한국 화훼 시장이 가진 고질적인 한계를 이렇게 진단했다. 막거리 공산품은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경기와 상관없이 소비되지만, 화훼류는 사치품 혹은 특별한 날에만 찾는 일회성 소모품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화훼 농가들은 가정의 달이나 졸업 시즌 등 특정 성수기에는 반짝 특수를 누리다가도, 비성수기나 경기 침체가 오면 직격탄을 맞기 일쑤였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이 회장과 그의 가족은 선진 화훼 국가들의 사례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다.

“외국은 전혀 달라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을 가보면, 대형 마트나 시장의 계산대 바로 옆에 항상 꽃 매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다 보고 나서 집에 가기 직전 자연스럽게 꽃 한두 송이를 뽑아서 계산대로 향하죠. 일상 속에 꽃이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 인터넷 직거래(D2C)로 여는 신선함의 신세계, 품질이 곧 브랜드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니 한 달에 단 두 번만이라도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꽃을 사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 화훼 농업의 지형도가 바뀔 것입니다. 겨울철 백합 같은 꽃은 관리를 조금만 잘해주면 집안에서 이주일 넘게도 싱싱하게 가거든요”

이강훈 회장은 소비자를 온실로 직접 방문하게 하고, 일상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D2C)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적극 도입했다. 기존의 공판장 경매 중심 유통 구조는 여러 단계의 중간 도매상을 거치며 유통 마진이 붙어 소비자 가격은 비싸지고, 그 사이 꽃의 신선도는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온라인 직거래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소비자는 동네 꽃집이나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덕분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꽃을 구매할 수 있고, 농가는 제 값을 보장받아 마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저온 물류 및 택배 시스템 덕분에, 오늘 청운플라워 온실에서 수확한 최고급 백합이 내일 아침이면 전국의 소비자 식탁 위에 그대로 배송된다.

특히 청운플라워의 온라인 마케팅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철저한 ‘품질 차별화’에 있다.

이대표는 “오프라인 동네 꽃가게에서 파는 꽃들은 간혹 묶음 사이에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대가 약한 것들이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물량은 오직 최상위 등급인 ‘A급’만 골라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소비 트렌드는 ‘이미지’와 ‘신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고 한다.

◆ 4-H 정신으로 연대하는 청년 농업의 미래

이강훈 회장의 시선은 자신의 농장이 거둔 성공의 결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2025년에 이어 2026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장벽을 허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1952년 익산지방에서 전북 최초로 시작된 4-H 운동은 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의 이념을 바탕으로 농촌 부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 회장은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H 정신을 2026년 청년 농부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다. 고립된 환경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의 재배 기술과 스마트 팜 운영 노하우, 그리고 유통 마케팅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초기 자본의 장벽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청년 농부 혼자서 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벽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4-H라는 끈끈한 네트워크 안에서 청년들이 서로 연대한다면 실패의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는 가장 매력적인 첨단 블루오션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꽃병에 꽂힌 한 송이가 주는 일상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된다. ‘원 테이블, 원 플라워(One Table, One Flower)’를 외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식탁 위에 매일 신선한 꽃 향기를 배달하겠다는 이강훈 회장의 야심 찬 포부는 이미 완주 봉동의 온실 밖으로 전북 농업의 미래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첨단 ICT 기술과 든든한 가족의 신뢰, 그리고 확고한 품질 경영으로 대한민국 화훼 산업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가는 백합 청년 이강훈. 그가 피워낸 혁신의 다음 계절이 더욱 기다려진다.

/이상훈 기자

